

혹시 자신에게 속고 있는가?

기만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자기기만이다.

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대적하고, 제 육신은 제 영혼에 대해 모반을 일으킵니다. 제 영혼의 원수는 저를 복음의 거룩한 빛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제 마음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주님과 저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 어둠을 영원히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힘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암흑 속에 가두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 교훈은 예수님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에 비추는 빛"(요 1:9)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주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암흑의 왕,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깊고 위험하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들은 반역의 어둠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빛이 세상에 찾아오지 않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깊은 절망감이 생기도 한다. 그들 앞에는 세상의 소망,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일부러 빛을 외면하고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왜 그들의 눈이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어둠에 적응해버렸다. 이런 내적 어둠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둠 때문에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지만, 사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역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눈 먼 사람들, 즉 양심이 왜곡된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들의 내적 어둠은 순수한 양심과 선한 도덕적 가치의 진가를 인정할 줄 모른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이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내적 어둠 때문이다. 이런 모든 내적 어둠은 치명적인 자기기만에 빠지게 만든다. 기만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자기기만이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 마귀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말이다! 자기기만의 치료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그분의 치료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다. 성령은 인간을 영적으로 되살리고 영혼의 어둠을 영원히 쫓아버리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빛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것이 비결이다.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임재의 영광스런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 W. 토저의 "말씀이 힘이다"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3권 44호 2017년 10월 29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346장 (새찬211장) 1,2,3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3:36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향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파송찬양 (Closing Hymn) 생명주께있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서병일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1월 성찬식이 성령집회로 인해 둘째 주일인 11월 12일에 있습니다
- ◆ 11월 1일 수요일예배가 선교스쿨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정다윗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 ◆ 2017년 구역회가 11월 4일(토) 오후 1:45분에 Ocean City에 있는 St. Peter's UMC에서 있습니다. 주소는 501 E. 8th St., Ocean City, NJ 08226 입니다.
- ◆ 창립 43주년 기념 성령집회가 11월 3일(금), 4일(토), 5일(일) 3일간 베다니교회 원로목사님 이신 장동찬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주제: 참된 부흥을 주옵소서(합3:2)
11/3(금): 저녁집회 8:00pm
11/4(토): 새벽집회 5:30am
 저녁집회 7:00pm
11/5(일): 새벽집회 6:00am
 오전집회 11:00am
- ◆ 한국학교 주최 Korean Night이 11월 12일(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 박태익목사 협동목사 추대식이 11월 19일(주일)예배중에 있습니다.
- ◆ 친교는 이선희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마경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 ◆ 매일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친교시간에 판매합니다. 각 권당 \$6 입니다.
- ◆ Daylight Saving Time이 다음 주일인 11월 5일에 끝납니다.

[재단관리이사회]

오늘 친교후에 재단관리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중모임/행사

- 11월 3일(금)-5일(일) 창립43주년기념 성령집회
- 11월 4일(토) 1:45pm 구역회(Church Conference)
- 11월 10일(금) 7:30pm 선교스쿨 1기 졸업식
- 11월 11일(토) 6:30pm 속장 인도자 교육
- 11월 12일(일) 5:00pm 한국학교주최 Korean Night
- 11월 19일(일) 11:00am 추수감사주일, 박태익목사 협동목사 추대식

지난주일통계

헌금총액	\$2,042	출석총인원	65
십일조	\$860	KM 본예배	48
주정(주일)	\$655	주일학교	7
감사헌금	\$460	EM 예배	10
선교헌금	\$30		
주일학교	\$37		
EM	\$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1월 친교/헌화

5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12	박영자권사 / 김중열성도
19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26	천춘옥권사 / 김중열성도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이원희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